안녕하세요?
고광종 & 최유미 선교사 문안 인사 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년 5 월에 고광종 선교사가 최유미 선교사를 데리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대사관에서 동반 비자를 내주지 않아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서류만
75 페이지를 공증번역하여 제출했지만 거절 당하고 남아공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지고 있는 중에
최유미 선교사가 먹던 고혈압 약을 끊고 음식과 운동으로 조절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오른쪽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현상이 왔습니다.
양방, 한방으로 치료하기를 7 개월 계속하여 지금 현재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걷기에 불편한 것을 제외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평생 고혈압 약은 빼놓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건강의 문제로 남아공에 가고싶은 마음과는 달리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 년반동안 혼자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사역한
고광종 선교사 역시 면역체계가 깨어져서 계속해서
한방으로 물약과 환으로 된 약과 장침 및 침을 맞으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남아공 현지에 세 교회 목회자들과 메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 있어 차라리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남아공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제재하는 것 같습니다.
동반비자를 받기 위해 고광종 선교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반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고선교사가 거동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 된것 같아서 여행비자 3 개월짜리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허락이 떨어지기까지는 3~4 주 걸린다 하니 받으면 바로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남아공으로 가려고 합니다.

<2021 년 사역들>
1. 구제사역 _ 1) 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옥수수가루(25KG)을 나누어 주며 한달 식량으로 굶지 않도록 함
2) 맛소이 어린이들 밥퍼사역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한끼씩 나누어 줌(150~200 명)
3) 세 교회 목회자들 가정에 한달분 식량과 식료품들 사줌
2. 목회사역 - 1) 세 교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심방하며 전도
2)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할때는 뒷 산에 올라가 산상기도 함
3)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훈련(목회자와 성도들)
3. 신학생 키우기 -1) SATS 에 다니는 신학생 5 명(마벨라, 시미야옹, 탄디웨, 안토니오, 응카미소)에게 학비를 분기별로 보냄
2) 안토니오가 모잠비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해 줌
3) SATS 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
4. 고광종 선교사가 한국에 온 5 월 이후로는 이곳에서 일들이 생길때마다 온라인으로 선교비와 학비를 조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여행비자 3 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잘 준비 되도록(현지에 사는 사람이 초청장을 보냈을때 그것이 허락되도록)
2. 여행비자를 받아서 3 월 안에는 남아공에 돌아갈 수 있도록
3.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4. 선교지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세 현지인 목회자들과 그 가정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성도들을 잘 돌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5.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무사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